



성장하게 부딪힌 모바일CP 생존전략 모색자리 마련

모바일 산업 전분야 조망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2005년 한 해의 모바일 산업 전 분야를 조망하는 '제5회 코리아 모바일 그랜드 컨퍼런스'가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강남역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K모바일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부의 2005년 모바일 관련 사업전략 설명과 SK텔레콤, KTF & LG텔레콤 등 이통3사의 무선데이터 관련 2005년 중점 추진 사업계획 및 방침이 발표됐고 아울러 한계론에 부딪히고 있는 모바일CP의 향후 생존 및 발전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글_권경희 기자 · 사진_이혜성 기자

2005년 한 해의 모바일 산업 전분야를 조망해보고 특히 올해 이슈가 될 분야를 미리 점검해 보는 전략입안의 자리로 마련된 '제5회 코리아 모바일 그랜드 컨퍼런스'가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동안 강남역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DMB서비스의 향후 사업전개 방향 ▲서비스 될 콘텐츠의 특성 ▲수면위로 부상한 음악시장의 향방 ▲향후 DMB의 역할과 잠재력 등을 평가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토론과 함께 모바일 산업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휴대폰의 출시 전략, 진화방향 및 융복합화의 본질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뤄졌다. 휴대폰제조업체 관계자가 주로 강의를 펼쳤으며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무선망개방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은 물론 학계나 기관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모바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이틀에 걸친 이번 '제5회 코리아 모바일 그랜드 컨퍼런스'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열린 강연이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의 참여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업계에서 모바일에 어

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뉴미디어 사업 및 단말기 시장 심층 논의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모바일 시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는 정부와 이통통신사들의 올해 사업 방향과 뉴미디어 사업 및 단말기 시장의 융합트렌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와 운양수 사무관이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휴대인터넷(Wibro) 진행 계획과 무선 데이터 요금 체계의 개선 방안, 그리고 무선 망 개방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특히 무선 망 개방에 따른 콘텐츠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이에 따라 콘텐츠 보안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모바일 서비스를 사실상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이통통신사들의 무선 인터넷 시장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SK텔레콤 포털사업본부 이유중 과장은 모바일 킬러 콘텐츠의 다양화와 복합화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컨버전스가 콘텐츠와 단말기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 포털 네이

트를 어떻게 드라이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KTF 뮤직사업팀 서희용 과장은 KTF의 음악, 동영상, 텔레매틱스 등의 신규 서비스 추진 전략과 콘텐츠 유통의 키크라고 할 수 있는 DRM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동사별로 DRM이 달라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서로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DRM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조사회사 엔터키너의 도은주 책임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통방융합 현황과 시장 상황, 특히 이웃 일본의 통방융합 서비스 현황과 역무제도에 대해 강의했고 LG전자 단말연구소 조항준 팀장이 휴대폰의 진화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와 함께 올해 UI의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DMB 킬러 애플리케이션 전망자리 마련돼

또한 현재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트워크 경제연구팀 지경용 팀장은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경쟁 구도 전망과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찰, 그리고 DMB 단말기 수요 전망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얘기하며 DMB가 많은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함으로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KBS인터넷 모바일사업팀 장형재 팀장은 지상파 DMB 서비스 추진 전략과 더불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콘텐츠 수급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 설명했다.

DMB와 더불어 신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들의 설명도 이어졌다. KT 휴대인터넷본부 박형출 마케팅 전략부장이 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휴대인터넷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가능성과 단말, 서비스 확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외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주제로 강의했고 더불어 하나로텔레콤 휴대인터넷사업추진단 홍현성 사업기획 팀장이 동사의 휴대인터넷 사업 추진방향과 서비스 초기에 전용 단말기가 어떤 방향으로 채택될 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휴대인터넷 사업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회사의 치열한 상황을 대변하듯 발표자의 자료와 주파수 선택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흥미로운 상황도 연출됐다.

모바일콘텐츠 수익창출 여부 관심 높아

행사 이튿날인 11일 모바일게임 전망 및 수익 창출 전략에 대한 강연을 맡은 엔텔리전트 장원상 이사는 “모바일게임 산업의 당면문제는 CP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출시 게임증가, 고객만족도 저하로 인한 이용자 수 정체로 인해 결국에는 모바일게임의 생존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모바일 CP의 생존 전략으로 “기획을 강화해 메이저 장르에 진입하고 유연한 가격정책을 펼쳐 차세대 콘텐츠 개발 투자로서 모바일게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소프트 장민 부장은 모바일 콘텐츠의 컨버전스에 대해 모바일 시장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콘텐츠 이용실태현황과 국내 유료 방송시장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모바일 콘텐츠 생산 및 소비 시장과 연계하여 컨버전스 플랫폼과 서비스전략을 편다면 성공적인 컨

버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솔루션 전문 회사이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MS와 같은 기업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소 민감한 질문으로 인해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뤄질 대답이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엠포마코리아 백은수 상무는 모바일게임의 국내외 퍼블리싱 전략 및 전문 포털 서비스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국장은 이동사와 유선 빅포털간 무선망개방에 대한 도출결과와 향후 전망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성호 국장은 ‘망개방 정책과 협의의 결과는 아직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서비스 경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망 개방이 힘들었다’고 밝히며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망 개방에 대한 모바일 CP들의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듯 강연이 끝난 이후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김 국장을 찾아가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선망 개방에 대한 평가와 향후대책

무선망 개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모든 사업자가 통신망을 차별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것이 뒷받침이 돼야만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의 김수경 팀장은 유선 빅 포털의 2005년 모바일 사업 추진계획 및 방향을 강연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 다음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했다. 김 팀장은 기존 유선 플랫폼과의 시너지 극대화와 경쟁력 있는 무선 서비스 라인업 구축으로 2006년 본격 망개방 환경에서 유무선 포털로서의 다음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는데 참가자들의 질문은 다음의 제주도 본사 이전과 근무요건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IT 업계에서 다음이 갖는 지명도를 짐작케 했다.

SKT 류승현 대리와 LGT 박병주 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MP3 폰 시장의 현황과 각자 서비스 하고 있는 ‘멜론’과 ‘뮤직온’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KTF가 본격적인 음악포털 서비스를 하기 전까지 주요 경쟁사였던 만큼 다른 발표자가 발표할 때 역시 참석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양사의 경쟁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SK 커뮤니케이션스의 황승준 대리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싸이월드의 2005년 모바일 활용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유선 커뮤니티의 무선제공의 한계는 단말기보급, 기술적 제약, 이용요금 등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의 needs 차이 때문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마지막 강연은 KTH 최우승 과장이었다. 성인콘텐츠 시장 전망과 수익전략에 대해서 망개방에 따른 불법 성인물의 범람과 무료 성인콘텐츠 제공 킬러 콘텐츠 분야에만 집중 서비스 하는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기획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성인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변화와 속도가 생명인 IT 분야에서 특히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 대해 행사 참가자들의 전문가적인 식견이 바탕이 된 수준 높은 질의와 모바일 업계의 키 플레이어라 할 수 있는 업체와 기관의 담당자들의 응답이 이어지며 이날 행사에선 모바일에 집중될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